

한국에서의 국어교육 연구와 실제

— 학술지 수록 논문을 중심으로

김중신 국어교육학회장,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 이 논문은 몽골 국립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한-몽 국제학술대회/한국 국어교육학회 제 1차 국제학술대회(2012.06.26~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게재 논문 개황
 1. 기획 논문 주제 분석
 2. 개별 논문 주제 분석
- III. 결론: 국어교육 연구의 추후 과제

I. 서론

주지하다시피 ‘국어교육’은 ‘국어’+‘교육’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문이다. ‘국어’의 한자 표기는 ‘國語’, 영문 표기는 ‘national language’이지만 한국에서는 속칭 ‘한국어’를 말한다. 이것이 학문이나 교육의 범주로 쓰일 때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아우르기도 한다.¹ 또한 ‘교육’의 학문 분류상 용어는 ‘pedagogy’이지만 일반적으로는 ‘教育’ 혹은 ‘education, teaching’²으로 쓰인다. 따라서 국어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 문학(문화)를 가르치는 일 혹은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용어상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어교육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는 ‘국어’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로 내용에 관한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방법에 관한 영역이다.

-
- 1 최근에는 ‘한국 문화’라는 범주도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 2 ‘교육’이 학문으로 쓰일 때는 ‘pedagogy’로 번역된다. 교육학은 근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하여 정리한 학문을 말한다.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동향을 살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 가장 유력한 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과 분포를 살피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국어교육학과 관련된 학회는 모두 50여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국어교육학의 세부 영역을 다루는 학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어교육학 전체를 아우르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학회는 두 군데를 짚을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교육학회’이며, 다른 하나는 ‘국어교육학회’이다.

한국어교육학회(<http://www.koredu.org>)는 1955년에 창립된 이래 2012년 6월 현재까지 273회에 걸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국어교육』을 137호나 간행한, 한국 국어교육학계의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학회라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회(<http://koredu.net>)는 1991년 3월에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50회에 걸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국어교육학 연구』를 43호 간행하였으며, 특히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록의 한국어교육학회와 폐기의 국어교육학회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국어교육학을 이끌어 가는 학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학회에 수록된 논문의 성향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어교육학의 현황을 점검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게재 논문 개황

1. 기획 논문 주제 분석

최근 3년간 두 학회에서 기획 주제로 설정한 것을 살펴보면 현재 국어교육학의 공적인 관심사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학회의 기획

주제는 회장단과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학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기획 주제로 선정된 분야는 당시 학계의 공적인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국어교육』에 게재된 기획 주제 명칭과 논문 편수(2009~2012년, 129~137호)

발행 시기	발행 호수	학술 대회의 기획 주제	논문 편수
2009	129	국제화 시대의 국어교육	13편
	130	(학술지에 명시되지 않았음)	12편
2010	131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21편
	132	故蘭臺李應百博士追慕特輯	10편
	133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와 학문적 쟁점	12편
2011	134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개선을 위한 국어과 평가 이론의 정립	14편
	135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개선을 위한 국어과 평가 이론의 정립	12편
	136	텍스트의 본질과 특성에 따른 국어과 교수 학습의 정련화	13편
2012	137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5편
계	9개 호		121편

『국어교육』에는 국어교육의 대내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듯이 국어교육의 대외적 위상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아울러 국어교육의 내적 정합성을 위한 국어과 평가 이론의 정립을 2호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올봄에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본 학회가 국어교육학의 모학회로서 국어교육학의 시급한 과제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는 것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에 소장학자 중심으로 구성된 『국어교육학연구』는 국어교육의 세부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어 교육에서 전자 문식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

도 어휘, 교육 내용 위계화 등 국어교육의 학문적 주된 관심사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국어교육』과 마찬가지로 국어교육의 실현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를 기획 주제로 삼고 있어 작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표 2. 『국어교육학연구』에 게재된 기획 주제와 논문 편수(2010~2012년, 39~43호)

발행 시기	발행 호수	학술 대회의 기획 주제	논문 편수
2010	39	국어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16편
2011	40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20편
	41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24편
	42	국어교육과 교과서	20편
2012	43	(학술지에 명시되지 않았음)	19편
계	5개 호		99편

2. 개별 논문 주제 분석

표 3. 두 학술지 게재 논문 영역별 분포 현황

대영역(비율)	중영역(비율)	소영역	편수
교과 내용학 - 국어(61%)	국어교과학(49.7%)	표현/이해	38
		문법	23
		문학	37
	매체(5.6%)	매체	11
		한국어(5.6%)	한국어교육
			11
교과 방법학 - 교육일반(36%)	교육(36.0%)	교육과정	23
		교과서	20
		교사/교수법	17
		평가	11
	기타(3%)	기타	6
계	100(%)		197(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어교육’은 ‘국어’라는 내용적 학문과 ‘교육’이라는 방법적 학문으로 양분될 수 있다.

교과 내용학으로서의 ‘국어’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전통적인 학문 분류에 속하는 ‘국어교과학’ 분야와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연구하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최근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중 매체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 교육’이 그것이다.³ 이 중에서 ‘국어교과학’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기능적 차원의 국어교육적 능력을 함양하는 ‘표현/이해교육’, 그리고 ‘문법 교육’과 ‘문학 교육’이 그것이다.

교과 방법학으로서의 ‘교육’은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는 ‘교육과정’,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과서’, 교육의 방법에 해당하는 ‘교사/교수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전 과정을 재점검하는 ‘평가’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에 게재된 논문으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29호에서 137호에 이르는 총 9개호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9호에서 43호에 이르는 총 5개호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두 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 조사 대상은 모두 197편이다. 이 중에서 내용 영역이 ‘국어’에 해당한 편수는 모두 120편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

3 여기서 분류한 ‘국어’의 3대 중영역의 각 위상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해방 이후 전통적으로 각급 교실의 국어 시간에는 다루었던 영역은 ‘수사학(표현/이해)’ 영역과 ‘국어학’과 ‘문학’ 등 3대 학문 분야로서 이를 통칭 ‘국어교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어 모어 학습자를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제1 모국어로 하지 않는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매체’는 7차 교육과정 이후 본격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게 되면서 ‘국어’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어의 3대 중영역은 학문적 위상은 다르긴 하지만, ‘국어’의 주된 내용을 구획 짓는다는 점에서 각각의 독립된 중영역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다.

방법 영역인 ‘교육’에 해당하는 편수는 71편으로,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국어교육학이 전통적으로 국어교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계로 내용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어 교육학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방법 영역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면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논문 편수와 세부 연구 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표현/이해 교육의 계재 논문 현황

영역(편수)	하위 분야	기관	편수	세부 연구 주제의 핵심어	
표현/이해 교육 (38)	화법(10)	교수법(4)	국	3	이야기 교육 내용, 상위담화, 의미연결 인식
			한	1	면담 교육
		말하기태도(2)	국	1	말하기 불안
			한	1	말하기 효능감
		실행연구(4)	국	3	거칠 화행, 면접 담화, CEDA 토론
			한	1	수행평가 사례
	독서(13)	이론/현황(4)	국	3	텍스트 복잡도, 텍스트 수준의 위계화, 이독성
			한	1	PISA 2009 읽기 영역 결과 분석
		독자연구(6)	국	5	반응 양상, 읽기 발달, 읽기 교육 방향, 생애교육
			한	1	읽기 태도
		실행연구(3)	국	2	독서 감상문, 문장 교육과 읽기 교육의 통합
			한	1	정보 덜어내기와 더해놓기
작문(15)	작문(3)	이론/현황(3)	한	3	작문 이론, 글 난도(difficulty) 평가, 과제 표상
		쓰기태도(3)	국	2	쓰기 윤리, 쓰기 효능감
			한	1	쓰기 동기, 글쓰기 의식
	작문(12)	실행연구(9)	국	2	프로젝트형 글쓰기 상담, 동료 반응과 그 수용 양상
			한	7	협동적 쓰기, 인쇄 광고 표제, 터자성 지향의 글쓰기, 필자의 정보 변환 양상, 논설문 평가, 텍스트 특성 비교, 비평문 쓰기

*‘국’은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한’은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에 수록된 논문임.

표현/이해 교육에서는 모두 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화법, 독서, 작문 영역이 비교적 고르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 서술형 답안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작문 영역에 대한 집중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CEDA 토론에 대한 연구나 PISA 읽기 영역 결과를 분석한 논문들은 최근의 이론에 대한 추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5. 문법 교육의 게재 논문 현황

영역(편수)	하위 분야	기관	편수	세부 연구 주제의 핵심어
문법 교육 (23)	총론(6)	이론/현황(5)	한	5
		방법(1)	국	1
	어휘(6)	평가(2)	국	2
		변천사(1)	국	1
		비교연구(3)	국	3
	음운론(1)	표기(1)	한	1
	형태론(5)	이론(4)	한	4
		실제(1)	한	1
	통사론(2)	·	한	2
	평가(3)	이론(2)	한	1
			국	1
		실제(1)	한	1

문법 교육 영역에서는 모두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학회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이 보이는 관심사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에 수록된 논문들은 문법 교육의 각론 부분에 해당하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 문법학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에서는 어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법학의 국어교육적 접근이 '탐구'의 대상으로 출

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교육이 도구과목적 성격을 지향하던 때에 문법학은 단순 지식 과목으로 간주되어 국어교육 내에서의 위상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 이때 문법학을 일종의 언어적 탐구 대상으로 전환하여 위상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주효하여 문법학의 국어교육 내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쉬운 것은 2007 개정 이후 탐구로서의 문법교육의 성격이 점차 무화되면서 문법적 지식이 그대로 국어교육의 내용 학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문법학과 문법교육학의 변별적 지점을 찾아 가려는 노력이 산견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특히 국어교육학회에서 ‘어휘’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학회를 구성하는 집행진들의 연구적 취향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휘’에 교육 내용이 대폭 강화된 것은 일정한 성과로 보인다.

표 6. 문학 교육의 계재 논문 현황

영역(편수)	하위 분야	기관	편수	세부 연구 주제의 핵심어
문학 교육 (37)	총론(12)	성격연구(6)	국 2 한 4	생애 교육으로서의 문학, 노인 리터러시 문학 교육에서 지식,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학 치료학
		교육과정(6)	국 2 한 4	문학 교육 내용 위계화, 구조화 평가 방법, 제재 평가 문항, 문학교육적 실천 모형
	시(12)	이론연구(5)	국 4 한 1	합축성 개념, 현대시 교육의 형성, 생태시 교육방법, 시 교육 평가의 개선 방안 복합양식 텍스트화
		실행연구(7)	국 1 한 6	영화 분석 어부사시사, 김광균 시, 한용운 시, 미당 시, 김광섭 초기시, 고전시가 쓰기
	소설(12)	이론연구(5)	국 1 한 4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 인물 연구, 에피파니(Epiphany) 인식과 서사적 정체성, 진정성의 서사 윤리, 서사텍스트의 텍스트 유형론
		실행연구(7)	한 6	고대설화, 황진이설화, 근대 전환기 구여성, 판소리 흥미, 근대 해외 기행 문학, 환상 동화
	희곡(1)	실행연구(1)	한 1	희곡과 연극 교육의 방안

문학 교육의 영역에서는 모두 3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어교과학 분야의 전체 논문 중 문법 분야보다는 많지만 표현/이해 분야보다는 1편이 적은 편수이다. 문학학 분야의 영역이 방대함에 비해 볼 때 숫자상으로는 매우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시나 소설, 희곡 등 문학의 장르별 연구 못지 않게 총론 분야, 즉 문학 교육의 성격과 방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의 속성상 학문적 위계화를 설정하기가 분명하지 않은 실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제재에 대한 교육적 연구가 제재 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학 교육의 성격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다분히 있다. 다만 그 연구의 질이 이론적 가설을 세우고 이를 스스로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자못 아쉬운 바가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지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교육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학회가 연륜이 깊다는 것과 무관할 수 없는 바, 국어교육학에 대한 이론적 천착보다는 작품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매체 교육의 게재 논문 현황

영역(편수)	하위 분야	기관	편수	세부 연구 주제의 핵심어
매체 교육 (11)	이론연구(5)	국	1	생태학의 관점에 따른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 내용
		한	4	초기 매체 교육, 매체언어의 사용 양상, 교육 내용, 소셜미디어의 소통 구조
	실행연구(6)	국	3	매체 과목, TV 논증 텍스트 분석 모형, 퍼지 이론 논증 도식 유형화
		한	3	인터넷 통신, TV 광고, 간판 매체

매체 교육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교과목으로 편성된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이 폐지되고 하나의 교육 영역으로 범위가 한정된 이후 점차 관심이 열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국어 교육의 외연적 확장이라는 점에서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

표 8. 한국어 교육의 계재 논문 현황

영역(편수)	하위 분야	기관	편수	세부 연구 주제의 핵심어
한국어 교육 (11)	교육과정/ 교수법(5)	국	3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용어, 기술 원리, 교수 지식
		한	2	재외동포 청소년,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표현이해(2)	국	1	의사소통 전략 구사 양상
		한	1	고급 읽기 교재
	문화/문학(3)	국	1	읽기 텍스트 선정 전략
		한	2	한국문화 교육의 쟁점과 전망, 현대시 교육
	문법(9)	국	3	다의 관계 인식, 관용표현, 계승어
		한	6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법 습득 양상, 조사 중첩 습득 양상, 목표어, 고유어, 어휘 오류
	해외 사례	국	3	호주, 북한, 태국
		한	2	독일, 중국

한국어 교육 분야의 계재 논문은 모두 11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어 교육은 ‘이중 언어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등 관련 전공 학회에서 세부 영역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두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비교적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관 전공 학술지에는 관련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데 비해 이 두 학술지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 번외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논문이 수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학술적 가치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문법은 주로 어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주요 교육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구사 능력 중 어휘력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표 9. 교육 영역의 게재 논문 현황

영역(편수)	하위 분야	기관	편수	세부 연구 주제의 핵심어
교육과정(23)	성격(9)	국	3	국어생활사, 국어과 통합 교육 양상, 융복합 교육의 양상
		한	6	국어 교과의 범교과적 위상, 영어공용어학, 세계화 시대, 국어 교육 질적 연구 동향,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의 기반 학문,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개발 과정(10)	국	3	2009 교육과정 비판적 검토, 2011 교육과정의 생태학적 검토, 국어 교과의 영역명
		한	7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사,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2009, 2001 국어과 교육과정 등
	내용 체계(4)	국	2	내용 조직, 텍스트 분류 체계
		한	2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의 위상, 영재교육의 체계
	개발(5)	국	4	전자 교과서, 국어교과서 평가, 현황과 과제,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
		한	1	초등 읽기 교과서
	체계(11)	국	1	통합 단원 구성
		한	10	심화 선택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제재(4)	국	2	교과서 반영 양상, 통합적 국어교과서
		한	2	교과서 제재 선정, 주장과 근거
교과서(20)	이론 연구(6)	국	4	교과서 선정, 교사의 국어 능력, 학습자 중심 교육, 수업 비평
		한	2	지식으로 수업 보기, 국어과 수업설계 지도
	모형 연구(5)	국	3	수업 목표 제시 양상, '시범 보이기'의 문제 양상, 국어수업 딜리마
		한	2	독서연극을 통한 문법 지도, '또물또'발문 모형
	실행 연구(6)	국	4	텍스트 유형별 선호와 인식, 수업 대화 방법, 수업 비평 글쓰기, 교수 첨삭 담화
		한	2	설득 텍스트, '정보전달' 텍스트
	총론(4)	국	2	텍스트 질적 평가 방안, 논설문 평가의 엄격성 및 일관성
		한	2	평가의 정합성 분석의 기초, 국어과 평가의 정합성 분석
	각론(7)	국	1	수능 언어 영역 개선 방향
		한	6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본질,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시행 체제)

기타 (6)	문식성(1)	국	1	문식성 교육의 실천적 원리
	자동언어(3)	국	3	문서 자동 요약의 현황과 과제, 자연언어처리, 자동교정기
	인접학문(1)	국	1	학제적 접근
	통합연구(2)	한	2	장르 중심 통합 단원, '설득' 범주의 교육 내용 통합

방법론적 영역에 속하는 '교육' 영역은 '국어' 영역에 비해 논문 편수는 작다. 하지만 점차 국어교육학의 위상이 잡혀 감에 따라 '교과 내용학'(국어)에 대한 관심 뜻지않게 '교과 방법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은 2009 개정 총론 교육과정, 2009 개정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2011 개정 각론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편이 2년도 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봇물처럼 터진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 교육이 단순히 학교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과목'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고력 신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 확보라는 정책 과목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 순간부터 국어교육의 학문적 독자성은 붕괴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국어교육학이 태생적으로 순수 인문학적 성격보다는 인문학적 지향점을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III. 결론: 국어교육 연구의 추후 과제

우리가 앞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연구』는 한국 국어교육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이다. 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만으로 국어교육학의 전체 동향을 짚어 낸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다만 두 학술지가 한국 국어교육의 대표적 학술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연구 동

향의 방향타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학술지 이외에 전국 국어교육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박사 논문 또한 학계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은 ‘국어’와 ‘교육’이 행복한 만남을 이룰 때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는 두 영역의 독자성을 견지하기보다는 상대 영역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호 접근을 통한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를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국어’ 분야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다. ‘표현/이해 교육’, ‘문법 교육’, ‘문학 교육’ 등에서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개념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등의 위계화나 연계화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법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에 대한 국어적 접근이다. 교과 교육이 단순히 교육적 기틀 위에 교과만을 얹혀 놓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각 학문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적 성격에 기초한 ‘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 영역의 게재 논문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과 외적 요구에 의해 국어교육학의 연구 동향이 쉽게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국어교육학 전체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할 때이다.

* 본 논문은 2012.10.31. 투고되었으며, 2012.11.18.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2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39호, 2010.
_____, 『국어교육학연구』 40호, 2001.
_____, 『국어교육학연구』 41호, 2011.
_____, 『국어교육학연구』 42호, 2011.
_____, 『국어교육학연구』 43호, 2012.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129호, 2009.
_____, 『국어교육』 130호, 2009.
_____, 『국어교육』 131호, 2010.
_____, 『국어교육』 132호, 2010.
_____, 『국어교육』 133호, 2010.
_____, 『국어교육』 134호, 2011.
_____, 『국어교육』 135호, 2011.
_____, 『국어교육』 136호, 2011.
_____, 『국어교육』 137호, 2012.

한국에서의 국어교육 연구와 실제

김중신

국어교육의 연구 대상은 ‘국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영역과 ‘교육’과 관련된 방법에 관한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이 분야에 대한 최근 학문적 동향을 살피기 위해 유력한 두 학술지인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발행)과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발행)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과 분포를 살피기로 한다.

최근 3년간 발행된 학술지에 수록된 기획 논문은 최근 국어교육학계의 공적 담론의 위상을 보여 준다. 『국어교육』(2009~2012년, 129~137호)에서 는 국어교육의 대내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듯이 국어교육의 대외적 위상을 접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어교육의 내적 정합성을 위한 국어과 평가 이론의 정립을 2호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국어교육학연구』(2010~2012년, 39~43호)에는 국어교육의 세부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전자 문식성과 어휘, 교육 내용 위계화 등 국어교육의 학문적 주된 관심사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두 학술지 모두 ‘교과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2011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학술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인 논문은 모두 197편인 바, 이중에서 내용 영역이 ‘국어’에 해당한 편수는 모두 120편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 방법 영역인 ‘교육’에 해당하는 편수는 71편으로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국어교육학이 전통적으로 국어교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계로 내용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어교육학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방법 영역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국어’ 분야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방법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에 대한 국어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영역의 게재 논문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과 외적 요구에 의해 국어교육학의 연구 동향이 쉽게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 보인다.

핵심어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 학술지 『국어교육』, 국어의 교육적 접근, 교육의 국어적 접근

ABSTRACT

Research and Practi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Kim, Jung-sin

The subjects of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re as follows. One is an area of contents in 'Korean language', the other is an area of method of the education. I will examine those two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because of the academic trends.

One is *KLE*(Korean Language Education) published in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http://www.koredu.org>), the other is *KLER*(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published in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The interests of two journals are as follows. *KLE* is focused on the external phase to check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KLER* is focused on the inner area of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he task of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is as follows. First, it needs the educational approach for the contents of the Korean language. Second, it needs the approach of Korean language for the method of the education. Third, it should not be changed easily by external demand trends.

KEYWORDS *KLE*(Korean Language Education), *KLER*(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the educational approach for the contents of the Korean language, the approach of Korean language for the method of the education